

민족의 넓과 향취넘치는 언어생활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리... 이것은 최근 공화국에 일떠선 거리의 이름들이다. 들을수록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표현들이 아닐수 없다.

거리이름뿐이 아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것이 민족의 고유한 정서가 넘치는 우리 말로 표기되고 있다.

해맞이식당, 네키리상점, 은정차집, 버드나무거리, 보통문조선옷점, 무지개식당, 평양단고기집, 붉은별역, 월향동,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 《해바라기》학습품, 《철쭉》양말, 《봄향기》화장품, 《꽃망울》에기껏가루, 《푸른하늘》전자제품, 리축복, 박노을... 지명으로부터 상품과 상품, 태어나는 아기이름에 이르기까지 어느것이나 다 민족의 향기가 넘쳐흐르고 있다.

사회발전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문화도덕수준, 나라의 문명정도는 직접적으로 언어에서 표현된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기본징표의 하나이며 언어생활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언어의 고수하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오늘 지구상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어는 소리가 류창하고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 사물현상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잘 나타낼수 있는 뛰어난 표현력으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의 하나로 되고 있다.

우리의 글은 풍부한 우리 말을 그대로 다 적을수 있고 그 어느 나라의 말도 거다 기록할수 있으며 글자가 배우기가 쉽고 쓰기에 편리하다.

영국의 한 이름있는 언어학자는 우리 글에 대해 발음기관을 형성

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독특하지만 기본글자에 획을 더하여 음성학적인 동일계열의 글자를 과생해내는 방법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훌륭하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어는 세계의 《언어올림픽》에서 최우수언어로 금메달까지 받았고 세계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언어학계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언어와도 겹칠수 없이 우수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며 긍지이다. 공화국에서는 해방후부터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살려쓰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아름답고 세련된 조선어를 평양문화어로 발전시켜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 문화어는 고유한 민족어를 바탕으로 하고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혁명투쟁을 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발전한 평양말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평양문화어는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하나를 하여도 명백하게 하는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기호에 맞는 언어이며 우리의 민족성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참다운 언어라고 하시면서 평양말을 기준으로 조선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확히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명도덕에 오늘 평양문화어는 주체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이 살아나는 언어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 공화국의 출판보도물들은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 글로 일관되어 있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평양문화어를 표준말로 즐겨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시기 한 해외동포는 자기의 글에 《공화국은 민족

의 혈액이 용용히 흐르는 민족성의 대화원이다. 공화국에는 분명 민족본연의 모습,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있고 고유한 멋과 향기가 있다. 여기가 바로 민족의 정기와 얼이 살아있고 약동하는 내 나라가 분명하다.》고 썼다. 아름다운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고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공화국은 민족의 넓이 살 아숨쉬는 우리 겨레의 진정한 조국이다.

강철남

조선민족의 넓이 깃들여있고 풍부한 생활감정과 정서, 다정다감한 우리 겨레의 문화전통이 살아 맥박치는 고유한 우리 말이 남조선에서는 집량말로 변하고있으며 외래어에 밀려우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중보도수단들속에서 보편화되고있는 외래어람용의 심각성을 까밝힌 《불필요한 영어자막사용 실태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지금 라지와 TV 등에 넘쳐나는 무분별한 외래어람 받은 방송언어의 가장 큰 문제로 되고있다. 로인세대는 보도내용을 리해하지 못하여 소외되고있고 세대간 의사소통의 단절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언어습관을 주입시키는 역작용을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면서 대중보도수단들속에서 보편화되고있는 외래어람용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에 대해 까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2021년 상반기에 대중보도수단들의 방송프로그램 영어자막비율이 평균 68.2회로서 2019년(48.2회)에 비해 20회나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날이 갈수록 영어자막사용비율이 늘어 나고 학생들이 이에 익숙해져나오니 어느 한 고등학교 교원이 학생들에게 《리지직》(Easy) (쉬운, 수월한)로 잘못알아듣는 웃지 못할 회비극도 벌어졌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대중보도수단들이 조선어와 외래어가 뒤섞인 잡량말들을 마구 사용하고있는데 대해서도 까밝혔다.

그에 따르면 대중보도수단들의 자막에는 영어뿐 아니라 조선어와 영어단어혼합표기, 영어의 로마글자표기, 조선어의 로마글자표기, 조선어자모와 로마글자혼합표기 등 그 표현형식과 류형들이 다양

해지고있다고 한다. 특히 영어의 로마글자표기는 2020년 184건, 2021년 상반기 119건으로서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조선어의 로마글자표기도 2020년 50건, 2021년 상반기에는 37건으로 증가하였다 고 한다.

그리고 조선어와 영어단어혼합표기는 2020년 361건, 2021년 상반기 270건이나 되었으며 영어를

는것으로 하여 각계층에서 《우리말비하》, 《영어사대주의》라는 규탄과 조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윤석열은 6월 10일 통상시공무원의 이름을 짓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원이름을 《내셔널 메모리 파크》(《국립추모공원》)로 하 면 좋겠다,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한글》로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민족어를 깔아내리고 영어를 숭배하는 해괴망측한

늘어나는 외래어, 사멸되는 민족어

남조선에서

조선어로 표기한것도 2020년 1777건, 2021년 상반기 1319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언어과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대중보도수단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들은 일상언어로까지 고착되었다고 하면서 조선어와 뒤섞여진 각종 외래어사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 는 양상을 보이고있다고 까탄하였다.

조선말도 외래어도 아닌 잡량말 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어를 점차 사멸시키고있는 남조선에 과연 미래가 있을수 있겠는가.

더우기 현 집권자까지도 공식석상에서 영어를 자주 사용하고있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각계층과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이 공식장소들에서 말할때마다 영어를 사용하는 등 지나친 《영어사랑》을 나타내고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알기 쉬운 우리 말을 사용해야 한다. 윤석열은 《대통령》자적이 없다고 비난하고있다.

제정판과 민족의 넓이 없이 외래어, 잡량말을 마구 사용하면 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어를 점차 사멸시키고있는 남조선에 과연 미래가 있을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가정

우리 호담당의사

공화국의 인민적인 보건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의사당 당구역제가 돌발적인 방역위기상황하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어머니당의 걱정과 보살핌의 손길로 자기들이 담당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정과 사랑을 다 바쳐가는 보건인원들속에는 중구역 평화종합진료소의 호담당의사들도 있다.

뜻밖의 방역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이곳 진료소의 보건인원들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단결로써 우리들자신의 귀중한 생명과 생활과 미래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열렬한 호소를 심장깊이 새기고 환자치료를 떨쳐나섰다.

지난 5월 어느날 깊은 밤

합진료소의 임윤미의사는 지체없이 환자에게 달려가 온 밤 집중적인 치료전투를 벌 려였다. 그에게도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앓고있는 어린 자식이 있었다. 그러나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보건인원군 그의 마음속에 어찌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이 따로 있을수 있랴.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를 위해 찬물찜질을 하기도 하고 위장장애를 해소시키려고 수기치료도 하면서 잠시도 결을 떠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앓는 자식의 병구완을 위해 온 심혼을 깡그리 쏟아부는 어머니의 모습그대로였다.

이런 뜨거운 지성이 있어 다음날부터 열이 내리면서 증상이 호전되어갔다. 그에 따르는 치료대책을 세워주었고 그는 잠시의 휴식도 마다하고 또 다른 환자를 돌보는 임무를 계속 이어 갔다. ... 얼마전 해방산동 25인민반에 살고있는 한 주민이 련 화종합진료소에 편지를 보내 어왔다.

《우리 호담당의사 류순희 선생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 하고싶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에는 류순희의사가 한 로인을 위해 바친 뜨거운 지성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이른새벽부터 밤늦도록 주민세대를 찾아다니며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던 류순희의사는 한 로인이 심하게 앓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의 집으로 달려가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다. 그의 걸음은 이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계속 이어졌다.

몸이 불편한 속에서도 자기 한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찾아와 상태를 관찰하기도 하고 약이 떨어지면 한밤중에 달려가 약을 안겨 주는 그를 보면서 로인도, 그의 가족들도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앓고있는 환자들을 위해 낮과 밤, 쉬운 일,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고 사랑과 헌신을 바쳐가는 참된 보건인원들이 어찌 이룰뿐이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자신의 가정에서 쓰셔야 할 약품들까지 보내주시며 예지 중지 살보이처럼 품어 보살피시는 인민, 그 귀중한 인민의 생명안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높은 자각과 불같은 인간애를 지니고 리성철소장, 최순녀과장 그리고 김정희, 진순영, 정진옥, 서명심을 비롯한 호담당의사들도 주민세대들을 수시로 돌면서 낮과 밤이 따로없이 치료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수많은 주민들을 완쾌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정말 고맙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키워주신 보건인원들이 있어 병을 털고 일어났다고 만나는 사람들이 거듭 인사할 때마다 이들은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느라고 애썼을뿐이라고 말하곤 한다.

환자의 병상태를 보기 전에 환자의 돈주머니부터 먼저 보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이런 소행은 인간사랑의 화원인 이 땅 어디에서나 무수히 꽃피고 있다.

자기들의 병치료를 위해 아글라글 에스는 미더운 보건인원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어머니당의 모습을 또 똑같이 안아본다. 그리고 사랑과 정을 담아 부른다. 우리 호담당의 사라고.

본사기자 홍범식

독재문답 재미동료 김소영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의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의 우월성은 어디에 있는가

공화국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워주는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어 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워주는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어 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워주는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어 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워주는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어 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워주는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어 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워주는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어 있다.

주인으로 내세워주고있는 공화국에서는 탁아유치원생들에 대한 훌륭한 보육제도를 보장해주고있다. 특히 교사, 교원, 연구사, 예술인, 의사 그리고 출장이 잦은 여성들을 비롯하여 직업상특성으로 일이 바쁜 여성들과 자식을 년년생으로 낳은 여성들을 위한 주탁아소, 주유치원이 곳곳에 있어 여성들이 사회정치활동에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못하고 일해나가고있다.

또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건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물론 탁아유치원생들의 식료품등도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부모없는 어린이들을 육아원과 교육원, 초등학원과 중

등학교에서 국가가 맡아 키워주며 여러명의 어린이를 키우는 여성, 특히 세상둥이, 내생둥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주고있다. 공화국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의 우월성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모든 어린이들을 정신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건전하게 키우는 데 큰 공헌을 넣는데서도 표현되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속에서 공화국의 어린이들속에서는 꼬마수재, 꼬마재간둥이들이 수많은 자라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어린이들에게는 누구나 할것없이

래어나자부터 건강관리부가 따라다니며 탁아소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 영양일지, 목욕일지가 따라다닌다. 모든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공화국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 《조선에서는 인민이 하늘이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왕은 아이입니다. 어디 가나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중전이다.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만 보아도 조선의 더 밝은 앞날을 그려볼수 있다.》고 부러워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아이들의 새 교복을 보며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의 험거운 속에서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아이들의 연필문제가 토의되었고 준엄한 진행세기에는 전선으로 달려야 할 공동자동차들에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들이 정히 실려 학교로 보내졌다것은 세상사 다 아는 사실이다.

은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공우유를 실은 왕자들이 거리를 누비었고 갖가지 파일을 실은 자동차들이 아이들을 찾아 달리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으며 뜻깊은 명절이면 사랑의 선물들이 어린이들의 가슴에 가득 안겨졌다.

지난 10여년간 이 땅에는 또 얼마나 열화같은 후대사랑의 화폭들이 펼쳐졌던가. 공화국을 일컬어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압살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 전례가 없는 자연재해까지 덮쳐들었지만 나라의 곳곳에는 중직같은 애육원, 육아원, 초등학원, 중등학교들이 일떠서고 원아들에게 1년 365일 물고

기를 충분히 먹이기 위해 현 대적인 수산사업소가 일떠섰다. 그런가 하면 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들이 새롭게 개건되고 육류야동병원이 훌륭히 건설되었으며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 《해바라기》학습품이 아이들에게 공급되었다.

특히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속에도 국가의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이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이 조선로동

당의 정책으로 수립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전국이레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지만 전국의 애기어머니들이 《꽃망울》에기껏가루, 알기 쉬운 책을 받아안았고 물고기들을 가득 실은 차들이 육아원, 육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들로 달렸으며 《은방울》검들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공급되었다.

그리고 오늘은 방역대전의 날날들에 마련된 새 교복과 가방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겨지고있으니 참으로 어려운 국난속에서 더 깊이, 더

뜨겁게 와닿는 후대사랑과 미래사랑이다. 아이들의 새 교복. 그것은 단순한 학생옷이 아니라 집합하고 날로 더욱 뜨거워만지는 위대한 어머니의 후대사랑의 결정체이다. 아이들의 웃음을 무엇보다 바랄수 없고 대신할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부로 간직하시고 하날도 감복할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역사를 끊임 없이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철세워인을 높이 모시며 이 땅에서는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서》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대동강구역 육류1동 서경진

